

2022년 여름호

제 107호 2022년 5월 16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
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후
12:10)

발행인 · 박형대 / 편집인 · 이경건 / 학생기자 · 장동원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71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 FAX · 888-9112

서울대기독교인연합

2022-1학기 종강예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2022.05.30 18:00

학생회관 2층 라운지

안흥기 목사님

사도행전 11:19-26

예배 후 식교제도 함께해요!♡

f ch :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ig: snu_christianunion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종강예배가 5월 30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의 말씀은 안흥기 목사(글로벌찬양 의교회)가 담당한다. 주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이며 본문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26절이다. 행사 후에는 식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1면 감사칼럼 ... 백향목 간사

2면 서기연 대표 취임사 ... 홍원의
중앙위원의 글 ... 김선우

3면 밴쿠버의 기독교 동문들 ... 송경철, 정힘찬

4, 5면 특집 인터뷰 ... Tony Qian 교수
비전포럼 소식

6면 단체 소식 ... 인기연/JOY선교회

7면 비전트립 팀 소식 ... 남승호 교수/홍혜원
서울대 선교센터 개소 소식 ... 이경건 편집인

8면 서기연 소식 ... 개강예배/중간고사 간식
나눔/이단 대처 세미나

간사 칼럼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독교인 여러분. 저는 ESF 백향목 간사입니다. 2년간 코로나로 조용하던 캠퍼스에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캠퍼스 곳곳에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학생식당에도, 그리고 서울대 입구에도 많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셔틀버스 줄도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으면 미묘한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다.’ 라고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년간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었고, 각 선교공동체의 사역 형태도 여러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일단 공동체를 주름잡던 캠퍼스의 리더들이 갑자기 졸업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공동체에서 떠오르는 기대주들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캠퍼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내기였던 친구들은 선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배는 낯선 곳에 찾아온 후배들에게 미리 적응한 사람으로서 환대하고, 또 적응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배들은 누군가에게 선배가 되어주기엔 이들도 아직 적응이 필요한 상태이고, 더욱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사역도 이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일입니다. 그렇게 캠퍼스가 낯선 이들과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지체들이 훌쩍 나이가 들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저도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저는 올해로 37세입니다. 저는 분명 3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캠퍼스 간사였는데 그새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지구의 책임(대표)간사가 된 지 3년이 되었고, 공동체의 최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면서 책임질 일이 많아졌고, 하는 일들이 달라졌으며 그러면서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2년을 돌아보며 저에게 있었던 변화와 지금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진리는 나의 빛’에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동행해 줄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때 영감을 주었던 한 무명 그리스도인의 문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답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감성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행해줄 영성이다.”

이것은 저의 사역 철학이기도 합니다. 동행하는 간사, 친구 같은 목자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역할이 바뀌면서 동행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동체의 지체들이 저를 어려워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워 하는 게 느껴지고, 제가 없을 때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자리에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때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가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불편할 거야’,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뒤덮으면서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용건만 말하게 됩니다.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슬쩍 피하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서 의미 없는 질문들을 던지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어색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하게 되고 살아있지 않은 것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해야 할 일들이 많기도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

합니다. 회관의 인테리어, 카메라 구매 및 설치, 회관 PC 업그레이드, 재정정리 및 후원자관리, 월간보고서 작성, 월세 관리, 건물주와의 관계, 세금정리, 차량정비 및 관리, 통장정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매뉴얼 정리, 영상 편집, 회의록 정리, 소식지 제작 등등. 책임간사가 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저에게 때로는 회피할 장소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업무들을 처리하며 보내는 시간과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이 부족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지체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보 만들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소식지 발송해야 하는데 엑셀 작업 좀 도와줄 수 있어?’ ‘빔프로젝터 설치해야 하는데 혹시 옆에서 좀 잡아줄래?’ 등등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회관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책임간사님 곁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책임간사님만 만나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쉬려고 회관에 갔는데 그곳에 책임간사님이 있으면 어김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책임간사님을 피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임자가 되면서 하고 싶은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 해야 하는 일, 정확히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회 안 하면 안 된다.’ ‘신입생 홍보 조금 더 해야 하지 않겠니?’ 등등 부담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책임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나면 일 이야기만 하고 부담만 주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마음이 들기에 앞서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위에서 나열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될 겁니다. 재정이 없으면 간사를 세우지 못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공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와서 아늑하게 쉬어 갈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로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한다고 고마워하지도 칭찬해주지도 않습니다. “간사님, 올해 법인 등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사님 차량 미션 오일과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방점검이랑 가스 점검할 때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알아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수고와 짊어진 짐은 대부분 당연한 것들이고 공동체 대다수가 관심을 두지 않는, 아니 인식조차 못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면서 또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게 서럽고 슬펍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낮아지기 위해 힘썼고 지체들의 슬픔과 기쁨을 곁에서 함께 나누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책임자가 되니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느낌이고, 제가 곁에 있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슬픈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을까. 20년~30년 이렇게 일하시면서, 공동체의 굵은일들을 다 해내면서 나를 부담스러워 하는 시선까지 어떻게 견디셨을까?’ 저는 과거에 선배들에게 많이 따지고, 어른들에게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젊은 학생이고 간사였는데 그런 되바라진 말들을 어떻게 다 수용하고 견뎌 내셨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

VERITAS LUX MEA

에 있는 결심들과 생각들, 그리고 배양된 각자의 성품이 궁금합니다. (혹, 이미 저와 같은 과정을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선배 간사님들 혹은 교수님들, 어른들이 계신다면 대화를 나누고 싶고 조언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연락해주세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고 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참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느끼시는 외로움은 결핍으로 가득 찬 저의 외로움과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려면 내가 드린 것은 참 많은 외로움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감정은 진노이기도 하겠지만 슬픔과 외로움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째,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겪으신 그 외로움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들이 싫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며 스스로 많이 자라고 있다고 느낍니다. 갈수록 내가 하는 일은 더 낫은 일들이고, 섬기는 일들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많이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느끼던 효능감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느낍니다.

셋째, 동행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수고와 필요한 일이며,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 5년 전 '진리는 나의 빛'에서 나누었을 때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신감은 많이 잃었지만 대신 겸손을 배웠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많은 말들을 침묵과 행동, 그리고 기도로 대체해가는 것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회피하거나 일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보고서 보는 횟수를 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중입니다. 일보다는 영혼에 집중해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진솔한 마음에 닿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지 않

고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한 영혼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중보하는 목자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글을 솔직하게 쓰려다 보니 신앙 간증보다는 하소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니 지치고 상한 저의 영혼이 보이고 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시려는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맡은 일을 감당하시는 영적 선배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는 모든 동역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백향목 ESF 간사

서기연 대표 취임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기연 대표로 섬기게 된 **홍원의**(동물생명공학16)라고 합니다. 지난 21년 만에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 준비를 하며 한 해 계획을 고민하던 차에 정명현 형제님으로부터 대표직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가 서기연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입학하던 해 새내기 신앙OT에서 서기연을 만났고,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또 JOY대의원으로 서기연 대의원회의에 참여하기도 했고, 연합예배와 신앙OT를 통해 서기연의 사역을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서기연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선배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고, 또 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배울 수 있었던 형제자매님들의 얼굴들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주님을 닮은 그분들의 성품과 캠퍼스 복음화를 향한 분명한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기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지 엿볼 수 있었고, 그것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기연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질문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신앙 공동체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지,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당면했던 전제들이 사라졌을 때 기독교신앙은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지, 각 신앙 공동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연합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과 성격을 띠어야 하는지, 캠퍼스 한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시대에서 서기연의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정말 많은 주제들을 서기연에 있으면서 맛닥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대답을 실천해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이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

저에게 서기연은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곳이었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처음 초대받은 곳이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게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되짚어보며 서기연과 함께 했었을 때 누렸던 기쁨과, 제가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고 싶은 의욕으로 서기연 대표직을 수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진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생기는 걱정이 있었고, 캠퍼스의 공동체 사역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표의 자질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열혈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게 알려주셨던 말씀은 분주한 마음을 갖지 말 것에 대한 경고, 매일 주님께 삶을 의탁할 것에 대한 강조, 그리고 매일 하던 일을 꾸준하게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연 대표를 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서기연 대표를 하는 결정이 맞았나 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 켠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서 있는 것이 괜찮은가 걱정이 듭니다. 회의감을 가지고 주저하게 되는 지점은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이 캠퍼스에서 주의 일을 보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롱받고, 복음은 기쁘게 들리지 않는 오늘날의 캠퍼스를 보면서, 한국 교회 청소년 비율이 급감하고, 새로운 청년 신자들은 적게 태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서기연에게 책임을 물으실까, 혹시 더 이상 서기연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불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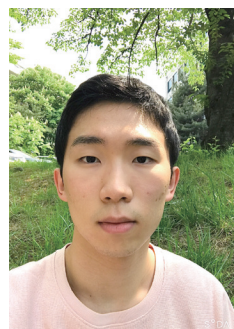
느꼈습니다. 캠퍼스의 상황은 점점 더 복음을 갈급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치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를 해야 할 텐데, 주기보다 주위의 형제자매님들로부터 받고 있어서 민망합니다.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말씀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서기연 대표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들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 두신 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시는지, 여러 공동체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감을 더욱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바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천성 가는 길목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믿음으로 확신하기가 저에게는 어려우나, 이 땅에도 다시 새 일을 행하시고, 방황과 좌절로 고통받는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서기연 대표로 있는 동안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의(동물생명공학 16)

중앙위원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새로 취임하며 서기연의 사역에 동참한 다짐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한 이야기,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이야기 등 다니엘의 이야기는 제가 주일 학교에서부터 익숙하게 들어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도전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많은 기원 형제자매님들께도 비슷한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이후 다니엘서 본문이 제게 다가온 것은, 2019년 서기연 신앙오티에서 들은 **유요한** 교수님의 '신앙과 학문' 강의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학문과 신앙'이 아니라 '신앙과 학문'임을 강조하시며, "믿음으로 살기에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느 때나 어려웠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대학 생활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확고함을 지키고, 은혜를 구하며 학문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에 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신입생, 군 휴학생, 복학생을 거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요즘, 다니엘서의 말씀이 다시 제게 많은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많이 듣습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각자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자신을 형성해 가는 대학 생활의 과정에서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돌아서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진로와 가치관을 고민하며 갈피를 잡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믿음이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은 친구들, 믿음 안에 있지만 삶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헛갈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순전하게 믿었던 어렸을 때보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서,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미련하게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종교 중의 하나로 축소해서 믿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 분별없이 따르려 하고, 나보다 지금 잘하는 친구들 앞에서 속절없이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날이 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의미가 빈 단어가 되어갔습니다. 성공한 창업자들, 학교 교수님들, 성과가 탁월한 선배들이 하나님보다 강하고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문명, 기술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이상의 주장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무대가 되는 바벨론 땅은, 천하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 영향력이 있는 강한 왕국으로 그려집니다. 그 중심에서 왕직을 맡은 사람은, 그 왕국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위엄에 흠뻑 젖어 살아갑니다. 사람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자기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단 4: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인간 왕을 낮추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명백히 알게 하십니다(단 4:32). 세상이 강해 보이고, 그 권세의 중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인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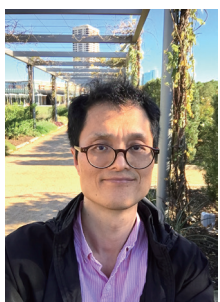
밴쿠버의 기독 동문들로부터의 소식

디아스포라(diaspora)는 헬어로 ‘파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특정 민족이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이룩한 거주 집단을 지칭하는 데 쓰이곤 한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유대인들에게 쓰이는 말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인들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로써 교민 사회를 표현하기도 한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전 지구에 퍼져 있으며, 그 중에는 기독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에 위치한 밴쿠버(Vancouver)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북미대륙 서안에 위치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곳이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면서도, 우리나라 기독인들에게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VIEW)이 위치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오늘날 밴쿠버에는 약 50,0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서울대 기독 동문들도 있다.

본지 편집인은 지난 3월 24일 - 4월 2일에 출장차 밴쿠버로 향했다. 편집인은 밴쿠버에서 다섯 분의 서울대 기독 동문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남상국** 목사(종교학과 63, 캐나다 이민목회), **송경철** 교수(경제학과 9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과) 내외, **정힘찬** 교수(경영학과 06, Simon Fraser University 통계 및 보험계리학) 내외가 바로 그들이다. 다섯 분의 기독 동문들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이국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을 간증하였다. 그 중 **송경철** 교수 및 **정힘찬** 교수는 서울대 기독학생들 및 대학총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귀한 소식을 본지에 기고해주셨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대담 형식으로 정리하여 싣는다.

(1) 서울대 캠퍼스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기억은 어떠십니까?



송경철(이하 ‘송’): 제가 대학총교회에 1992년-1993년 정도 다니고, 그 후에는 충성교회에 다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짧은 기간이었는데, 제게는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주기도원에서 있었던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오성종**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머리로,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권혁**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찬양을 함께 불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같이 생활관에서 여러 형제들과 생활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고전학파에 다니시면서, 학문과 신앙에 깊숙이 빠져서 즐거워하시던 **이두희** 선배님의 밝은 웃음, 그리고 밤늦게 모두 같이 기도하던 시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보다 먼저 대학총교회에서 충성교회로 파송되었던 **장영호** 집사님, **이영록** 집사님(옛날 호칭)의 깊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 저에게 영적으로 많은 여러 조언을 주셨던 **박영범** 목사님, 경제학과 선배님이

기도 하셨던, **박형대** 목사님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말하면 밥을 사준다고 해서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연히 그 밥은 공짜가 아니었고 그 이후로 서기연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렇게 낚여서 서기연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2010년 가을에 있었던 서기연 부흥성회와 2011년 신입생들을 위한 OT 준비팀(참고로 지금 저와 삶을 함께하고 있는 아내는 서기연 OT 준비팀에서 처음 알게된 인연입니다)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매주 월요일 아침에 있는 서기연 아침기도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인천에서 통학하던 저에게는 기도를 하면 따뜻한 아침밥과 간식을 준다는 모임이 거의 복음과도 같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밴쿠버에서 생활하시게 된 계기 및 밴쿠버에서의 신앙 생활은 어떠십니까?

송: 제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조교수 생활을 마칠 즈음, 2010년 겨울에 테뉴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마침 UBC(Univesr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교수직 제안이 와서, 밴쿠버에 2011년에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곳 밴쿠버에 오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서는 UBC근처에 있는 University Chapel이라는 조그만 캐나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 오신 연세가 많으신 백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갓 캐나다에 온 아시아 분들, 또 유럽이나 남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등등, 여러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두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 교회가 Anglican 전통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정밀하게 다듬어진 기독교 예전, 영성의 깊이, 그 부요함이 정말 크고 복됨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 저는 2020년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이곳 밴쿠버에 있는 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밴쿠버로 이주하여 한인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좋은 점은 ‘나그네 및 소외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저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묵상하며, 세상을 그대로 응시하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는 법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어려움을 수용하되,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며 신실하게 살기로 다시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믿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애쓰는 서기연 학우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제시하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의연하지 못하고 형편없이 몸부림치는 신앙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자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구원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통해 인간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맺는 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서기연에 참여하는 각자가 은사가 다르고, 문제의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손과 마음을 모으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는 일에, 함께하면 낼 수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학교와 세상에 선한 증거를 나타낼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신 각자에게, 부르신 분량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우(전기정보 19)

는 현재 한국어권 예배(KM)와 영어권 예배(EM)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언어적으로는 영어가 훨씬 편하지만 한국문화에 익숙한 한인 2세들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며, 한인 1세와 2세의 간극을 메꾸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서울대 기독학생, 동문, 대학총교회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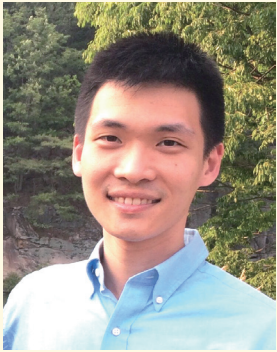
송: 서울대 기독학생, 대학총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 때 받았던 사랑, 열심히 암송하고, 배운 말씀들의 힘이,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정말 많은 혼란의 기간에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대학생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심는 것들이 결국 무엇이 되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을 따라, 당신의 뜻을, 힘 있고 확연하게 관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학생 때의 여정 속에서 본을 보여주신, 여기서 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계속 가꾸어 나가려고 지금도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은 학생 여러분께, 멀리서, 정말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 사순절 기간에 지금까지의 외국생활(미국 4년 / 캐나다 2년)을 돌아보았는데, 그 동안 저는 다음의 다섯 가지 - 자동차/학력/체류신분/안정적인 직업/부동산 - 를 확보하기 위해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혹여라도 외국에서 나중에 살 기회가 있으신 분은 이 다섯 가지가 정말로 힘이 있음을 발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하나하나를 제 손에 넣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제가 손에 넣은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기독동문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과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허락하시더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을 쓰고자 하시는 날이 올 때 언제라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의 기독 동문들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대한 하나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되 세계적인 시야를 지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분의 나라야말로 진정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기독인들이 그 나라를 섬기되 세계를 위하여 하고, 세계를 섬기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는(Serve the Nation for the World, and Serve the World for the Nation) 비전을 품기를 소망해 본다.

Tony Qian 교수 특별인터뷰



1. Please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about yourself.

1.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I am currently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SNU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SNU Asia Center. I grew up in New York City; graduated from Harvard College in Cambridge, Massachusetts; and received my J.D. from Harvard Law School and Ph.D. in Comparative Literature from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My research focuses on literati and legal culture in the Chinese late imperial period and late Chosŏn. My family and I attend Galilee Baptist Church (Gwanak Chapel), and join Bible studies with SNU Asian Baptist Student Koinonia (ABSK). I spend my free time chasing after my two toddlers, reading books (most recently, *The Lord of the Rings*), and following Yankees baseball.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 강사이자 아시아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뉴욕시에서 자라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에서 법무박사(J.D.)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중국 명청 시대와 조선 후기의 문인들과 법 문화(legal culture)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갈릴리침 레교회 관악채플에 출석하고 있고, 서울대 ABSK의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 어린 두 딸을 따라 다니느라 정신 없고, 책을 읽고 (최근에 <반지의 제왕>을 읽고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 광팬입니다.

2. How did you get to believe in God?

2.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I grew up with non-religious parents, but my great-grandmother was a devout Christian. I first learned about Jesus from her. After my family and I immigrated to the U.S., my life revolved around studying hard in school. But the terrorist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on September 11, 2001, which occurred only blocks from my high school, made me seriously consider my mortality and what life is all about. When applying to college, I was deferred by Harvard during the early round of admissions. I was extremely disappointed and wondered if all those late nights studying were worth it. When I finally got to Harvard, I remembered my great-grandmother's faith and began to read the Bible to find out if there is more to life. In my sophomore year, I started to attend Bible studies with Harvard Asian Baptist Student Koinonia (ABSK), taught by Chaplain Dr. Rebekah Kim (이금하, 문리대 69학번), began an one-on-one Bible study in the Gospel of John, and joined Antioch Baptist Church. I was convicted of the truth of the Bible, recognized how much I needed God especially through Psalm 42, and confessed that Jesus died for my sins so that I can die to my old self and live eternally. After becoming a Christian, I was baptized in the spring of 2006.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나, 증조모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저는 증조모님로부터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제 삶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던 세계무역센터에 테러 공격이 자행되었을 때, 저는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조기 입학 지원서를 냈는데, 정시 전형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극도로 실망했고 그동안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였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저는 증조모님의 믿음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하버드 ABSK에서 레베카 김(이금하, 문리대 69학번) 교목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 일대일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안디옥침례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시편 42편을 통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저의 옛 자아가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 2006년 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3. Could you tell me about the Christian activities you participated in at Harvard?

3. 하버드에서 참가했던 크리스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As a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I was part of Harvard ABSK. With the graduate group, I was part of the staff. We had weekly Bible studies, and special activities such as food and culture tours, sports fellowship, Christmas and other holiday celebrations, hiking and kayaking, and movie and game nights. One summer, we attended the Jesus Musical in Pennsylvania. We had regular small group prayer meetings, invited Christian guest speakers to give talks, had biannual retreats, and once upon a time, held Christian Festivals, which were original Christian-themed musicals performed by students.

학부생으로 또한 대학원생으로, 저는 하버드 ABSK와 함께 했습니다. 대학원 때에는 간사로 섬기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성경공부를 했고, 음식/문화 투어도 하고, 스포츠 교제, 크리스마스 및 명절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이킹을 가고, 카약을 타기도 하고, 무비와 게임 나이트를 갖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뮤지컬 <예수>를 보러 펜실베이니아주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소그룹 기도 모임을 가졌고, 크리스천 강사를 모시고 강연을 듣기도 했고, 일년에 두 번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창작하고 공연한 기독교적 주제의 뮤지컬 공연인 크리스천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습니다.

4. How did you start your lif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4.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요?

My wife Valerie, our two young children (Lydia and Margaret Emma), and I moved to Seoul in January 2021 as I had received a Fulbright scholarship to pursue research at SNU. I also received an appointment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SNU Asia Center. I was excited for the chance to become a part of the SNU community. Our Galilee Church members helped my family find an apartment near SNU, where we still live now.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 되어서, 제 아내 발레리와 어린 두 딸(리디아, 마가렛 엠마)과 함께 2021년 1월에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구성원이 될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갈릴리침레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족이 서울대 근처 아파트 찾는 것을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5. How is your life in Seoul? Are there any difficulties or differences from the places you lived before?

5.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우신 점이나 전에 사시던 곳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The pandemic has made it difficult to really explore the city, especially with our daughters. But our children love it here because they have been so well taken care of at our neighborhood daycare and by our church members. Not being able to speak Korean fluently makes it hard to get around, but at least many at SNU speak English! We are getting accustomed to the breakneck pace of life here, where everyone seems to be so busy (and this is coming from a New Yorker!). But it's a fun and friendly city—very large compared to Boston, and extremely convenient (we love the fast and affordable food delivery and Coupang!)—and we're glad to be here.

코로나로 인해, 특히 어린 두 딸과 함께 서울을 제대로 둘러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어린이집과 저희 교회에서 저희 딸들을 아주 잘 돌보아 주고 계셔서 아이들은 이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하셔서 괜찮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엄청나게 빠른 생활 속도에 점차 적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매우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뉴욕 출신인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재미있고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스턴에 비해 매우 큰 도시이며 편리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배달 음식이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로 오는 것에 매우 만족하며 쿠팡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arvard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s academic climate?

6. 하버드와 서울대의 학문적 풍토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Both Harvard and SNU attract the best students and faculty. I have been equally impressed by the work ethic of SNU and Harvard students. The main difference is that almost every student at Harvard lives on campus, while most SNU students do not. It seems to me that SNU students, especially those who

have to commute long distances, have to make an extra effort to be part of the university community. Harvard students have it much easier when it comes to joining on-campus academic (and non-academic) events.

하버드와 서울대 둘 다 최고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서울대와 하버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버드 학부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숙사에 사는 데 반해, 서울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 특히 먼 곳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교내 활동에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좀 더 부담없이 캠퍼스 안에서의 학문적 (또한 다른 종류의) 행사들에 참석하곤 합니다.

7. Can you tell us about your visions?

7. 갖고 계신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Foremost, I want to live out my faith as a Christian on the university campus where I work. My hope is that I can live out the Great Commandment (Matthew 22:37-40) and Great Commission (Matthew 28:19-20) in everything that I do. I desire for people to know the love of our Savior, and hope to share that love, even the smallest part of it. As an academic, I interact with many scholars and students, and I believe that God has placed me in such a position to share the gospel with those among them who want to hear.

무엇보다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바는 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 계명(마태복음 22:37-40)과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 사랑의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문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학자들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위치로 보내셔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8. I can easily see students who are struggling with conflicts between academic or world values and faith on God. Have you ever had this kind of trouble? If you have, how did you overcome it?

8. 학문적 또는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갈등하는 학생들을 흔히 봅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Yes, of course. The world in general, and academia in particular, demand a lot from us: our time, talents, energy. What it takes to be an excellent student and a successful person in this world (measured by prestige, money, etc.) sometimes feels the very opposite of what it takes to be a faithful Christian. Do I work more on this paper, or do I study the Bible and pray? That's a very

concrete question that students (and I) face every day. Every day is a day to fight the spiritual battle between loving this world and loving God. So I continually remind myself that everything I do is ultimately for God, and that I wi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I strive to put God first, obey His commandments, and never compromise—worship services, prayer meetings, Bible studies, fellowship with believers, these are my priorities. I believe God honors that, and my life, which is outside my control anyway, will be shaped for His purposes.

물론 이런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은 물론이고, 특히 학문 세계는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힘을 그것을 위해 다 쓰도록 요구합니다. 뛰어난 학생, (명성이나 재물 등으로 따질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 시간을 좀 더 쏟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학생들 (그리고 저도) 매일 직면하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서게 될 것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고자 힘씁니다. 예배, 기도회, 성경공부, 믿는 이들과의 교제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자세를 인정하시며, 애초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 제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Lastly,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to tell the Christian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마지막으로, 서울대의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Be humble and cling to God. Also, remember that we are all running the race together, even though the path may be hard at times—it is a narrow path, as Jesus says. But God is faithful and sovereign over us, and we ought to grow and mature in our faith where He has planted us. Don't be afraid to share your faith, your very identity in Christ, both by words and by how you live.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간혹 이 길이 험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에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주신 그 자리에서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입술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믿음을 간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역 : 변진수 사모(화학과 93학번), 갈릴리침교회 관악채플 기획 및 정리 : 장동원 학생기자(중어중문 19)

<비전포럼> 초청강연

전문성과 사랑 안에 북한과 하나되기



지난 5월 12일(목) 오후 7시에 서울대학교 500동 1층 목암홀(자연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비전센터가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협력: 그 기회와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평양의학대학 재활의학과에 재직 중인 **윤상혁** 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한 것이다. 최근 <사랑으로 길을 내다: 북한에서 이루어 가는 화목의 이야기>(두란노, 2021)를 출간한

기도 한 **윤상혁** 교수는 청소년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척추재활의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서 13년간 살면서, 크리스천 NGO를 설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여 왔다.

강연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상혁 교수는 자신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사역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본래 북한에서는 뇌성마비를 비롯한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상혁** 교수를 통해 몇몇 아동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점차 늘어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들이 치료되는 일이 지속되면서, **윤상혁**

교수는 자신 및 그 동역자들이 북한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윤상혁 교수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돕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모르지 않고 또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는데 도울 수 없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당사자들끼리 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윤상혁** 교수는 대북 지원이나 교류를 지속하는 데에도 이러한 중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사들이 교류한 사례를 통해, 전문성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함을 역설하였다.

강연에는 학생, 교수, 외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였으며, 강연 후에 참가자 각각의 관심사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상혁** 교수에 따르면 북한에 정신의학과는 있지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윤상혁** 교수는 북한에 관하여 탈북자들 또는 인권 단체에서 나오는 정보만이 전부 아니며, 북한이라는 국가 단위의 객관적인 '실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북한에서 장애인 치료는 지금까지는 관련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던 면이 크므로, 앞으로 희망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하였다.

강연 후반부에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어떻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사명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윤상혁** 교수는 자신의 경험상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에 비하여 통일에 관한 관심이 결코 적지 않으며, 다만 각 세대가 가진 통일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하였다. 청년 세대가 한국전쟁을 겪어본 것은 아니므로, 청년 세대에 던져야 할 통일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내 땅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분단이라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상황이 있음을 알려주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피해와 폭력을 알려주어 대한민국의 갈등 구조를 화해와 평화로 반전시키는 비전이자,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분쟁 국가들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서울대 기독교인들은 북한과 통일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 왔지만, **윤상혁** 교수의 경우처럼 실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역자의 강연을 듣고 여러 실제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는 드물었다. 서울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 서울대 비전센터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등록된 단체로서,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강연이 서울대 학내 외의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하며, 이후에도 서울대 비전센터를 통해 유익한 강연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단체 소식-인기연



안녕하세요, 인기연 대표로 섬기고 있는 중 어중문학과 19학번 **장동원**입니다. 인기연은 ‘인문대 기독교인 연합’을 줄여

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지면과 서기연 정기회의 단체 사역 보고를 통해 인기연을 소개하고, 소식과 더불어 감사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연은 인문대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문대 신입생들 가운데는 전공을 정하고 들어오는 학우들도 있지만, 전공은 미정인 채 반에만 배정되어 들어오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듬해면 16개의 전공들로 흩어지는데요, 자신이 속한 반에도 새로 찾은 전공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이 많지만, 이들이 쉬거나 의지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인문대에서 하는 공부의 문제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인문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에 더 빠져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체하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이성이나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낮게 평가하고 조롱하는 글들을 만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보다 다른 학문이 앞서는 일이 부끄럽게도 잦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문대에서의 삶을 두고 “시험 든다”라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전공 공부가 다른 만큼 각자의 비전도, 가는 길도 다르지만, 더욱 연합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기연은 이런 인문대 기독교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연합하여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인기연 대표를 작년 9월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귀국 직후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며 인기연에 대한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은 “회복”이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 35:1~2)

이 말씀은 이사야가 회복의 때에 보여질 아름다움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 회복과 복원의 벅찬이 표현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우리의 기연 활동이 “회복”될 때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벅차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도로, 2019년 이전의 기연 활동을 하나씩 회복해보았습니다.

-인기연의 사역들-

1. 정기 모임

인기연에서는 매주 한 번 점심시간을 정하여 함께 식사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함께 중단되었으나 “위드 코로나”라는 계획이 진전됨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제한적으로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방역 실정으로 인하여 작년에는 모임의 지속적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인기연에서는 겨울 방학 동안 기도로 새학기 모임을 준비하였고, 감사하게도, 개강과 함께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인원 제한이 전부 사라짐에 따라 걱정 없이 모든 구성원이 모여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문대 5동 114호 또는 버들골에서 열리는 인기연 모임에 어느 분이더라도 먼저 연락해주신다면 환영입니다.)

2. 부활절 나눔 사역

부활절에 달걀을 포장하여 주변에 나누는 것은 인기연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의 경험을 참고하여 확대 진행하였습니다. 포장 구성은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과, 복음을 담은 말씀 카드, 그리고 시험 기간 응원을 위한 사탕 등 작은 간식들로 이뤄졌습니다. 말씀 카드는 인기연에서 함께 뽑은 4개의 구절을 넣어 **이다은** 자매(영어영문 21)와 **양소민** 자매(인문계열 22)가 디자인하여 주었습니다. 포장하는 달걀의 수는 이전에 비해 소폭 늘렸으며, 주변의 지인들에게만

나누는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인문대 전체에 나누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0개의 달걀을 포장하였으며 여러 장소에서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인문대 5동 앞 해방터에서 부활절 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거부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었으며 많은 분이 “오늘이 부활절이었구나”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인문대 수업들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다은 자매는 “세계종교입문”에, 본인은 “중국어교육론”에 달걀을 나누며 인문대에 복음이 전해



지길 소망했습니다.

3. 말씀 읽기 특방 운영

올해 1월 1일부터 인기연의 지도교수인 **남승호** 교수님이 권해주심에 따라 말씀 읽기 특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각자 읽은 말씀, 때로는 묵상한 내용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기연의 기도제목을 공유합니다.

-기도 제목-

1. 인기연이 인문대 속 기독교인의 휴식처이자 의지할 곳이 될 수 있길.
2.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공부하는 인문대 기독교인들로 성장할 수 있길.
3. 말씀 읽기 특방의 성실한 지속
4. 인기연을 도와주시는 여러 교수님의 강건
5. 새로 얻은 공간을 서울대와 인문대 복음화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길.

다른 단체 여러분도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원(중어중문 19)

단체 소식-JOY선교회



안녕하세요! **조이(JOY)**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and spell JOY”, 즉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조이 스피릿을 가지고 활동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조이는 학원복음화협의회와 서울대기독교인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 중앙 동아리이며, 학생회관 4층 422호에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대학과 일터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케 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와 전문영역 및 선교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명을 실천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조이 스피릿에 따라 예수님을 첫째로 두기 위해 조이는 성경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최우선 원칙으로 따릅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그들을 인격적 태도로 섬기며 배려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낮아짐으로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이는 이러한 삶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저녁 JFM(Jesus First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JFM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찬양을 준비하고, 매 학기 한 권의 성경을 본문으로 정하여 간사님을 통해 강해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후에는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나 삶의 이야기 등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북스터디 등의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이에 새로 들어온 분들을 위해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엔조이어(N-JOYer)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학업으로 지쳐 있는 조이어들이 일상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한강이나 롯데월드, 경복궁, 서울숲 등 다양한 곳으로 나들이를 다니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함께 모여 서울남지부에 속한 다른 캠퍼스의 조이어들과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4~5일간 전국(여름) 또는 지부별(겨울)로 진행되는 수양회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모임들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조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듯, 조이어들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존중



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조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름처럼 JOYful, 즉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조

이는 인간적인 친밀함과 즐거움을 넘어 복음을 통해 참 기쁨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조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제목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째, 모든 조이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을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 둘째, 조이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환대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 셋째, 간사님과 임원들에게 조이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 넷째, 새로운 지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조이의 사역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조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and spell JOY”의 조이 스피릿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려고 합니다.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전트립

시리아 난민에게 서울대를 부르시는 하나님: 서울대 요르단 비전트립 참가 안내



2022년 8월 14~22일 서울대 기독교학생과 교수가 함께 요르단으로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향후 계속될 시리아 난민을 위한 프로젝트의 사전 정탐이 목적입니다.

2021년 가을 서울대 부흥사경회(9월 13~15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서울대 기독교인들을 시리아 난민에게 부르셨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수원하나교회)께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향을 잃은 난민들은 800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아동이며, 이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난민은 고향에서 듣지 못하는 복음을 타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난민 고아들이 전쟁과 테러에 동원되지 않도록 세계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복음으로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부흥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르단에 기거하는 시리아 난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지금까지 워크샵과 강연회, 기도회를 가

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내딛는 첫 걸음으로 올 여름 요르단 비전트립을 계획하였고, 이에 함께 할 교수-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 나갈 팀은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도 참가 지원을 받고 있다. 요르단 현지에서는 국제NGO의 도움을 받아, 현지 난민을 섬기는 교회와 학교,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고 요르단 내 성지도 탐방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준비한 간단한 아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서울대 기독교인들을 부르시고 행하실 미션을 발견하고, 향후 장기적인 난민 선교의 길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요르단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며 많은 국제기구들이 모여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 이전 총 인구(2,245만 명)의 3분의 1 이상이 난민이 되었다고 추정되며, 이들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인접국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흩어져 곤고한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5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이주하려던 세 살배기 시리아 소년 알란 크루디가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진은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까지 요르단에는 65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이 들어왔으며, 한국 등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국제NGO들이 난민 캠프와 도시지역의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에서 이들을 만나고 난민의 실상을 경험하며,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도 요르단의 난민을 돕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30~40명 규모의 봉사팀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서울대학교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난민들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게 하였고, 요르단 난민 프로젝트의 물꼬를 열어 주셨습니다. 오래전 이미 글로벌 이슈가 된 난민 이주 문제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그 길을 열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36)

오는 8월의 요르단 비전트립에 관한 정보나, 향후 서울대의 관련 프로젝트에 관해 문의가 있으면 **서리라** 사매(사법대 글로벌협동과정 박사과정, surira0624@snu.ac.kr)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남승호 교수(언어학과)

비전트립



나와 난민의 첫 만남은 2019년 여름, 터키 도시에 흩어져 사는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단기 선교봉사를 갔을 때였다.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해외 단기선교 경험을 통해 소수민족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으나 난민에 대해서는 관심도, 아는 바도 없었다.

‘난민’이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난민캠프 정도였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제안으로 함께 가게 된 터키 단기선교는 난민 중에서도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해준 기회가 되었다. 터키에서 여러 시리아 난민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경우도 여럿 있었는데, 무슬림들은 유일신의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영적 대화에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무신론자 친구들보다 말이 더 잘 통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숭상하는 선지자 중 한 명이기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면 나의 신앙을 존중한다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대해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적극적이었

다. 이를 통해 나는 어찌 보면 무슬림들은 영적 세계관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없는 사람보다 전도하기 더 쉬운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난민들은 그 마음속에 깊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삶의 터전과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뿌리뽑혀 방황하다 정착한 곳에서조차 불청객 취급받으며 여러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장 소외된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피난 온 지역사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피난 생활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사정으로 자유롭게 미래를 개척할 길이 막힌 소망에 목마른 사람들이다. 물론 난민들이라고 늘 무능하고 무력한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삶의 터전을 떠나기로 택한 용감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들이 피부로 경험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과 사망과 소망 없는 듯한 장래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무슬림 난민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무슬림 전도의

문이 난민사태를 통해 활짝 열렸다고 간증하신다. 견고한 요새와 같았던 무슬림 공동체에 전쟁과 분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슬림들의 영혼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생겼으며, 실제로 수많은 무슬림 난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며 위기를 기회로, 악을 선으로 전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난민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9월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서울대 기독교인 안에 난민을 향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난민을 섬기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마침내 시기에 내가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난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번 여름 요르단 비전트립에서 시리아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울대가 난민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홍혜원(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 전공 석사과정)

대학춘선교회 소식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기독교인 모임을 갖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가 갈수록 녹록치 않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캠퍼스 근처에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대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1994년 11월 27일 발행된 ‘진리는 나의 빛’(진나빛) 제1호 5면에는 ‘서울대 기독교선교센터 건립 추진’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려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당시 서울대학교 선교에 힘쓰던 서울대 기독교교회(이사장: **이복영**), 대학춘교회(담임목사: **오성중**), 서울대 선교장학회(이사장: **임종남**) 등이 주축이 되어 대예배실,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위한 방들, 기도실, 오늘날의 스터디카페와 같은 공간, 신앙생활관 등을 포괄한 선교센터의 건립을 기획한 것이다.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계획이 완수되지는 못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도서출판 대학춘 출판사가 선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신림동 부지에 임대하여 운영하였던 바 있다. 2022년 6월, 다시금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들과 대학춘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신림동에 개소하게 될 예정이다.

대학춘선교회 서울대학교 선교센터(가칭) 개소 예정

이번 선교센터 개소에 이르기까지의 대략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대학춘교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선교생활관의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선교센터 건립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2021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대학춘교회 장로, 권사, 집사 등 10여명 이상의 인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상시 활동하였다. 위원회는 2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선교센터 건립의 구체적인 방안을 5개 정도로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진나빛 제103호 - 21.06.14 4-5면).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대학춘교회는 지난 2022년 2월 20일(일)부터 3월 31일(목)까지 선교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40일 특별작정기도회를 진행하였다. 특별작정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마음을 따라, 대학춘교회는 캠퍼스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적절한 공간을 임대하여 선교센터로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소 예정인 선교센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교센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8-3번지 4층에

위치한다. 해당 위치는 신림동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약 300m 거리이며,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5516 버스를 탔을 때 지나는 ‘신성초등학교’ 정류장 바로 앞이다. 또한 5월 28일에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서울대벤처타운역’과도 300m 정도 거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학교 및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선교센터의 큰 장점이 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남향으로서, 실내 59평의 탁 트인 공간이다. 해당 공간 내에는 예배 공간, 소모임 공간, 상담 공간, 스터디카페, 음향시설을 완비한 찬양 연습 공간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사단법인 기독교대학춘선교회는 지난 5월 11일(수) 해당 공간을 계약하였다. 선교센터는 앞서 언급한 공간들의 구성을 포함하는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말일에 개소할 예정이다.

선교센터는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기독교학생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개방될 예정이다. 오래전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기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교센터가 청년들이 자신들의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사 54:2).

이경건 편집인

개강예배

서울대기독인연합 개강예배가 3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대학촌교회에서 열렸으며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되었다. 종강예배의 말씀은 이상갑 목사(청년사역연구소)가 담당하였다. 주제는 '설래임: 말씀이 내게 임한다'이며 본문말씀은 창세기12장 1-4절이었다.



서기연 단신 1

〈서기연 간식 나눔 행사〉

서울대기독인연합은 서울대 캠퍼스를 섬기고자 중간고사 기간에 간식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5월 2일, 심야 셔틀 대기줄 앞에서 비타민 음료를 나누며 시험 기간에 지친 학우들을 응원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정호근 중앙위원(사회교육 17)은 “시험기간에 지친 학우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박하게나마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기연 단신 2

〈이단 대처 세미나〉

최근 서울대 캠퍼스에서 여러 이단 종파가 더 극성을 띄며 활동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서울대기독인연합에서는 이단 대처 세미나를 열었다. 5월 16일 월요일 오후 7시, 26동 B101호에서 열렸으며 연사로 는 최고 전문가인 탁지원 신홍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을 모셨다. 이단에 대해 알아보며 경각심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